

**동우컬럼**

내가 변해야 한다

예수 믿기 전에 장남으로서 형제들에게 성질도 내고, 훈계도 하면서 나를 그들을 변화시키려 했으나 다 허사였다. 그런데 내가 예수 안에 들어와 변화하니 내 형제들이, 더 나아가 어머니까지도 변화되었다. 그때 깨달았다. “남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나를 변화시키자.”

상경에도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속에서 티를 빼리라”(마7:3~5). 우리는 늘 말한다. “내 남편이 변했으면 좋겠다.”, “내 아내가 달라졌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가 변화되면 좋을 텐데.”, “우리 상사가 좀 바뀌면 좋을 텐데.” 그래서 변화하고 바뀌기를 기도하고, 변화시켜보려 무진 애를 쓴다. 그러나 그것이 맘대로 되던가?

그런데 내 맘대로 되는 게 있다.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나는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 더 놀라운 것은 내가 변하니깐 변할 것 같지 않던 내 남편, 내 아내가 변하고, 절대 바뀔 것 같지 않던 내 성도, 내 상사가 바뀌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아내 된 자들이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흑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벧전3:1~2)고 하셨습니다. 아내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변화된 내 행실로, 변화된 내 삶으로 상대를 감동시키면 상대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물이 바울로 변화되니, 그 변화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지 않은가.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5:16).

변화는 남이 아닌 나부터다.

진실은 온 우주를 초월하는 화폐다

“진실은 온 우주를 초월하는 만국 공통의 화폐다.”

“큰 자가 되기 전에 깨끗하고 진실된 자가 되라.”

“진실은 오래가는 것이 아니다. 진실은 영원한 것이다.”

목사님은 항상 진실을 강조하신다. 진실만이 사람의 마음도,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움직이는 무기임을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못하는 것이 없는 분이지만, 꼭 한 가지 못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거짓 말을 못하시는 분입니다(히6:18). 제가 해외에 나가서 꼭 맨 처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이

제가 ‘기도는 하나님께 나의 진실을 아
 꾀는 것’이라고 정의하는 이유도 제 목회
 40년에 하나님을 연구하여 알게 된 지식
 이기 때문입니다. 저라고 왜 잘못이 없었
 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진실한 자세
 로 하나님께 잘못을 고하고 용서를 구하
 면 하나님은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이전
 일을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고 저의 진실
 에 기뻐하시며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십
 니다. 제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성도들에
 게 사랑을 받는 이유도 진실하려고 애쓰
 기 때문입니다. 저는 잘못된 게 있으면
 단에서 솔직히 밝히고 성도들에게 용서
 를 구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나의 진
 실함에 박수를 보내며 오히려 더욱 사랑

로 감사를 표하는 목회자들을 만납니다. 진실은 결코 다수결에 있지 않습니다. 진실을 지키는 싸움은 외롭고 고단한 전투입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400인의 거짓 선지자와 외롭게 싸우는 장면이 열왕기상 22장에 나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왕 아합이 길르앗 라못을 얻으려고 아람 왕을 협공하자는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묻자 400인의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불이셨다며 전쟁을 부추깁니다. 그런데 유독 미가야 선지자만이 반대합니다. 거짓의 영이 선지자들의 입에 불어 거짓을 말하게 함으로 왕을 전쟁에 나가 죽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실은 진실한 자에게만 통하는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세계목회자들
(2005 세계목회자 영성세미나, 장성 예루살렘기도원)

론이 없는 그들도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하면, 눈이 동그래집니다. 그러다 거짓말을 못하신다고 하면 박수를 치며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진실된 분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하실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하시며 요한복음에만 25번이나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실이시며, 진실만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간음죄에다 충신을 살해한 간악한 범죄를 저질렀던 다윗이 용서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의 진실한 눈물의 회개였 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지적에 바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하며 침상을 적시는 다윗의 눈물의 회개를 보신 하나님께서 그의 진실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해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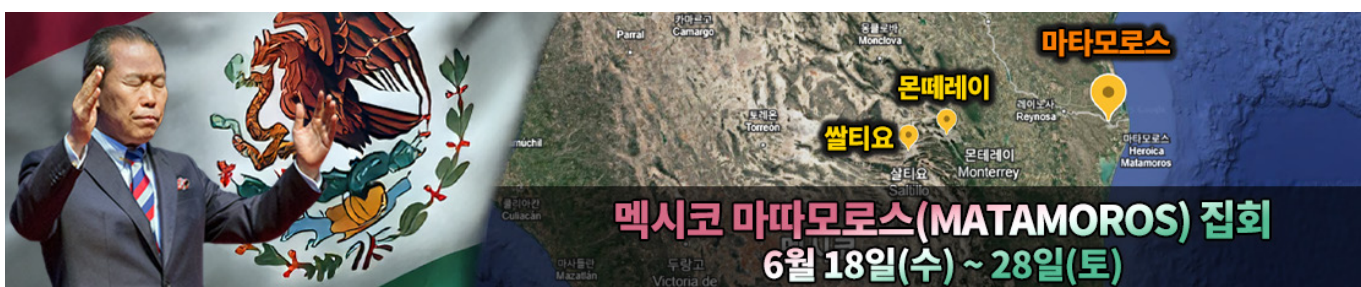
진실의 씨 속에 진실이 있고, 거짓의 씨 속에 거짓이 있습니다. 시간이 결과를 말 해줍니다. 해 아래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어서 우리는 무엇보다 거짓을 미워하 고 멀리해야 합니다. 거짓의 아버지는 마귀 이기 때문이며(요8:44), 거짓말하는 자 는 불과 유황이 타는 못, 곧 지옥에 던져 질 것이기 때문입니다(계21:8).

지난 2005년, 세계목회자 영성세미나에 서, 저는 세미나에 참석한 국내 및 세계 목회자들에게 ‘지금까지 진실되지 못했 던 일들을 회개하고, 거짓을 죽여 기도 원에 묻고 내려가라’고 아주 강한 어조 로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해 외집회를 가면 그때 들었던 메시지가 자 신의 인생과 목회를 바꿔놓았다며 눈물

법, 이를 무시하고 미가야를 옥에 가둔 후 전쟁에 나간 아합은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달콤한 거짓의 아침에 놀아난 결과입니다.

거짓을 심고 진실은 거둘 수는 없습니다. 나는 거짓말을 못하지는 않지만 안합니다. 내가 거짓 되고서야 어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습니까? 잠시 잠깐의 열락을 위해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팔려 영생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진실도, 거짓도 결국엔 다 드러납니다. 지금까지 거짓되었던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진실의 하나님께 옳다 인정하심을 받아 모두가 전대미문의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시128:1~6)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다

“자식은 여호와와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시127:3). 그렇습니다.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로 귀한 기업입니다. 이 기업을 잘 키우는 것은 부모의 몫입니다. 기업의 성과가 기업주의 경영에 있듯, 자식도 부모가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 곧은 거목이나, 잡목이나, 아니면 썰감이나 결정됩니다. 기업이 부도나면 기업주가 구속됩니다. 책임이 기업주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잘못되면 부모는 늙어 눈물항아리가 되고,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목회 40년 동안 자식 때문에 고통당하는 부모를 숭하게 봤습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잘못 키웠습니다. 제 발등 제가 찍었습니다.” 성경도 말씀합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 아버지의 근심이 되고 그 어머니의 고통이 되느니라”(잠17:25).

자식농사 잘 되면 천국이요 자식농사 잘못되면 지옥이다

그렇다면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할까요? 첫째,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가 바로 서야 합니다. 왜냐?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거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웃으면 거울도 웃고, 내가 찡그리면 거울도 찡그립니다. 내가 오른쪽을 보면 거울도 오른쪽을 보고, 내가 손을 들면 거울도 손을 듭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가 마치 거울에 비친 내 모습 같습니다. 자식은 부모가 하는 대로 한다는 겁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습니다. 부모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자식들도 하나님의 도를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보고 자란 이삭, 이삭을 보고 자란 야곱처럼. 또 부모가 바르고 정직하게 살면 ‘그렇게 살아라’ 하지 않아도 자식도 그렇게 삽니다. 닭은꼴은 시간과 정비례 하거든요. 그러나 부모가 맨날 화장창 중창 싸우면 아이들도 학교 가서 친구들을 괜히 때리고, 결혼해서도 부부간에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왜? 부모에게서 본 것이 그거니까. 부모가 매일 술이나 먹고, 담배 피고, 욕설이나 내뱉고, 사기나 치면 자식도 딱 그 꼴 납니다. 왜? 부모에게 배운 게 그거니까. 사과 씨를 심으면 사과가 열리지, 바나나 안 열리거든요. 왕골 밭에 왕골 나고 효자 집안에 효자 나거든요. 자고로 씨도독질은 못하는 법이거든요. ‘아이 보는 데서는 찬물도 못 마신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이들이 바로 따라하기 때문에 말과 사소한 행동에 신중하라는 말입니다. 기업이 바로 서려면 기업주가 먼저 바로 서야 하듯, 자식을 올곧

게 세우려면 부모가 먼저 올곧아야 합니다. 가정은 최고의 교육기관이자 최초의 교육기관이어야 하고, 부모는 최고의 스승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림자가 똑바르려면 내가 똑바로 서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둘째, 아이가 잘못하면 징계해야 하고, 초탈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초탈을 차마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잠13:24). 화초가 예쁘다고 물을 너무 많이 주면 뿌리가 썩습니다. 사랑도 지나치면 자식에게 독이 됩니다. 사랑스럽고 귀하고 그 다고 그 저 오



총회장 이초석 목사

나 오 나 하면 손 주가 할아버지의 상투를 잡습니다. 개망나니가 된다는 말입니다. 잘못된 일이 있으면 훈계하고 체벌을 해야 합니다. 10원을 도적질해도, 작은 거짓말을 해도 따끔하게 야단을 쳐야 합니다. ‘아휴~ 어린 것이 몰라서 그랬는데 웬 난리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소도둑이 되는 게 아닙니다. 바늘을 훔쳤을 때 야단치지 않고 그냥 넘어가서 소도둑까지 되는 겁니다. 바늘도둑일 때 때려서라도 바른 길로 가게 해야 나중 통곡하지 않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의 잘못을 눈 감아 줘서 그 꼴이 난 것 아닙니까.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잠29:15). 요즘 세대가 어떻습니까. 아이가 학교 기물을 일부러 파손해서 선생님이 아이를 혼내고 손바닥이라도 한 대 때리면 부모가 득달같이 학교로 달려가 ‘나도 손 한 번 안 대고 키운 자식인데, 당신이 뭘 때리냐? 물어주면 될 거 아니냐’고 대들

니다. 그리고 그 자식에게 ‘엄마가 다 해결했으니 걱정 말고 학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와라’고 합니다.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런 놈이 일류대학 간들, 박사가 된들 뭐하겠습니까? 그런 놈이 나중에 부모는 알아보겠습니까? 이웃을 챙기겠습니까? 그 능력으로 못된 짓이나 안 하면 다 행입니다. 인성이 먼저요, 그 후에 능력을 갖춰야 그 능력이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과일 농사 지어보셨습니까? 실하고 큰 열매를 얻으려면 가지치기를 해줘야 한다고 농부들이 말합니다. 그냥 놔두면 열매가 부실해집니다. 자식의 잘못을 쳐내지 않으면 사람 안 됩니다. 고름을 짜버려야지, 아프다고 싸매면 그 자식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미운 자식 뻘 하나 더 주고, 예쁜 자식 매 하나 더 준다고 한 것이고, 예수님도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히12:8)고 하신 겁니다. 머리가 커지면 훈계는 물론이고, 초탈은 더욱 어렵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자식이 잘못해서 때리려고 하니까 자식놈이 어미 팔을 딱 잡고는 “왜 때려요” 하더라고요. 제가 분재를 해봐서 아는데, 어린 가지는 곡이 잘 잡히지만, 가지가 굵어지면 곡을 잡으려고 하면 부러집니다. 그러니 잘잘못은 일찍 깨우쳐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잠23:13~14). 셋째,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신6:4~9).

씨도적질은 못한다 왕골 밭에 왕골난다

인간의 어느 장로님 자녀들이 그렇게 호자라고 소문이 나서 제가 자식을 어떻게 키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분이 딱 한 마디 하셨습니다. “매일 잠언을 쓰라고 했을 뿐입니다.” 맞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22:6)는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저도 우리 아들들이 어릴 때 매일 잠언을 쓰게 했었습니다. 어릴 때는 그것 쓰는 것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 크고 나더니 “그 잠언의 말씀이 삶의 토대가 되었습니다”라고 자기를 입으로 얘기합니다. 자식 잘 되라고 어릴 때부터 영어유치원 보내고, 없는 돈에 비싼 학원 보내고, 유학 보내고 난리를 치지요? 그게 잘못 되었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 되어야 할 방법, 더 좋은 방법이 자식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양육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잘 키워주십니다.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시너로 배불리 먹게 하시며”(신6:10~11).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찌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신28:12~13).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잠3:2). 농사 중에 자식농사가 제일이라고 합니다. 자식 농사 망치면 지옥이지만, 자식 농사 잘 지으면 천국입니다. 그러니 돈으로 사육하지 말고 부디 하나님 말씀으로 자식을 잘 양육하여 시편 128편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시길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 객원컬럼 ::

가족 구원을 위해 올라!

얼마 전, 장인께서 팔순을 맞으셨다. 자식 된 도리로 가까운 지인분들을 초청하여 조촐한 식사 자리를 마련해드렸다. 지난 팔십 년 인생을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예배를 드리는 게 우선일 터, 하여 교구 목사님을 모시려고 하는데, 갑자기 장인 장모님 모두 이를 마다하신다. ‘사위가 목사인데 또 누구를 모셔!’ 하시며 말이다.

팔순 감사예배 당일, 인근에서 사고가 났는지 말도 못할 교통 체증이 발생하여 하객들이 늦게 도착했다. 예약된 시간이 훌쩍 지나자 식당 측에서도 더는 늦출 수 없다며 숯불을 들여오고 곧바로 음식상을 차리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장모님은 대뜸 하객들을 향해 ‘먼저 예배부터 드립시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하여 믿지도 않는 인척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다.

사실 장인은 어린 시절, 절에 거뒀진 동자승 출신이시다. 장모님도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터다. 그런 연고로 필자가 목사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더도 안 돌아보고 결혼을 반대하셨던 분들이다. 심지어 첫 만남에는 집안에 발도 들이지 못하게 하셨었다. 이로 인해 그간 아내가 당한 모진 핍박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런데 시나브로 믿음이 들어가니 주일을 성수하게 되었고, 어느덧 집사, 명예권사 직분도 받으시더니, 이제 잔칫상도 뒤로

한 채 ‘예배가 우선’이라며 믿지 않는 하객들 앞에서도 담대히 믿음을 선포하시는 모습을 보이신 것이다!

식사를 마치고 식당 계단을 내려오는데 장인께서 내 어깨를 두드리며 한마디 하셨다.

“내가 사위는 잘 얻었어. 고맙네, 고마워!”

영생이 있음을 알고, 구원은 오직 예수뿐임을 알게 되시니 자연스레 감사의 고백이 나오시는 것이리라!

그렇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고, 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올라’(눅23:28)고 강조하셨다.

총회장 목사님 말씀처럼, 태어날 땐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는 법! 가족을 위해,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할 것이다. 세상 풍조는 점점 더 진리를 거스르고 대적한다. 하나님의 자녀들마저 세상과 절충하고 타협하여 점점 더 믿음을 잃어가는 세대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눅 18:8)라고 예수님은 통탄하셨다.

수련회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이번 기회에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심령 깊숙이 각인시킬 수 있도록, 반드시 참여하여 그들 모두 인생의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집중해서 기도하자!

신현명 목사

:: 세상을 보는 창 ::

삶의 나이테, 신앙의 나이테

나무를 잘랐을 때 동심원처럼 그려진 고리들이 보인다. 이것을 우리는 ‘나이테’라고 부른다. 나이테가 중요한 이유는 그 나무의 세월이 가장 선명하고 아름답게 기록된 흔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무마다 나이테를 관찰해보면 어느 해는 가뭄과 추위로 힘들었고, 또 어느 해는 풍요로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신앙의 나이테는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 신앙의 나이테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고난에 대한 반응이 신앙의 나이테를 만들어간다. 신앙의 고비 고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거나 은혜의 단비를 경험하면서 조금씩 자라난 그 고난의 흔적들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나이테처럼 새겨지기 때문이다.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의 감동과 감격의 눈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되어지는 수많은 기도 응답들..., 삶의 나이테는 시간의 흐름이라 말할 수 있지만, 신앙의 나이테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이다. 왜냐하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도 믿음을 지켰던 날들의 흔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시련을 당했을 때 남들이 몰라주는 아픔과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던 새벽기도의 시간과 금식하며 작성 기도했던 시간들이 우리 신앙을 더 깊고 넓게 만들어왔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욥 23:10). 욥의 멋진 고백처럼 고난과 시련은 내 신앙의 나이테를 더욱 단단하고 멋지게 만든다. 사도 바울 또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고후4:16)라고 고백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매일의 선택과 순종, 기도와 헌신을 통해 신앙의 나이테를 그려가고 있다. 나무가 바람과 비에도 뿌리 깊이 견디듯, 신앙의 나이테가 단단한 사람은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오늘의 작은 순종이 내일의 단단한 나이테가 되며, 주님은 그 모든 과정을 아시고 귀히 여기실 것이다.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그분은 우리 삶과 신앙의 나이테를 보시고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 칭찬하실 것이다. 지금 외롭고 지친 상황이라도, 더 깊고 단단한 나이테를 만들어가고 있음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힘차게 일어서기를 소망한다.

이정금 전도사

멈추지 않는구나

옛 어른들, 세월 이길 장사 없다더니
참으로 진리 중 진리다
세월을 요리할 자 그 누군가
내 나이 고희(古稀)를 넘겼으니
아~아 세월 참 빠르구나

이제!
모든 일에 심사숙고,
다섯 번 생각할 것 열 번 생각하자
혹시나 노욕에 주님 맘 아프게 할라, 욕심내지 말자
남의 맘 아프게도 말고
병들고 가난 속에 울며 길 찾는 외로운 자 벗 되며
틀쫄기 사막에 꽃 피우고
산천초목 살리며 바다 찾아 웃으며 가듯이
내 고향 천국 향해 이웃과 웃으며 손잡고 벗 삼아 가자꾸나
초석아~~
이것이 선한 목자 길 아니겠나
무엇을 더 바라리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로다

등우

:: 소망의 언덕 ::

마음의 안팎을 닦자!

얼마 전, 유독 거실 창문 얼룩이 더럽게 느껴졌다. 유리세정제로 정성껏 창문을 닦아보았지만, 여전히 창문은 뿌옇다. 문제는 건물 바깥쪽의 외창이었다. 창문을 반쯤 열고 손을 뻗어 닦아보려 했지만 닿을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었고, 무엇보다 창밖으로 몸이 기울며 위험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좋은 제품이 있었다. 실내에서 손으로 청소 도구를 움직이면, 자력으로 붙어 있는 반대쪽 도구가 외창을 함께 닦아주는 원리였다.

정말 효과가 있을까 잠시 망설이다가 제품을 주문했다. 제품이 도착하자마자 창문을 닦기 시작했다. 설명서 대로 위에서 아래로 차분하게 창문 구석구석을 쓸 어내려 청소를 마치고 나니 “와우!” 조금 과장하자면, 신세계가 펼쳐졌다.

‘진작 바깥 창을 닦았어야 했는데.’ 하는 생각이 들 무렵, 문득 큰 깨달음을 얻었다. 창문의 안과 밖이 모두 깨끗해야 세상을 온전히 볼 수 있는 것처럼, 나 자신도 그렇다는 사실이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주일이 되면 회개를 한다. 그래서 지은 죄들을 눈물로 고백하고 통회하며 깨끗한 삶을 다짐한다.

그러나 자신의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보고 듣고 접하는 것들이 여전히 경우가 많다. 마치 세상 사람들이 건물 안에서 내창만 닦고 만족하는 것처럼 말이다.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내가 세상에서 접하는 모든 것 또한 깨끗해야 한다. 결단 깨끗하고 속이 더럽다면, 그야말로 바리새인처럼 되는 것이다.

룻은 의인이었지만(벤후2:7), 잘못된 선택으로 소돔성에 거하게 된다. 보고 듣는 것이 모두 음란했던 소돔에서, 평생 괴로움에 사로잡힌 신앙생활을 했던 룻과 같은 삶을 살고 싶지는 않다. 내 겉과 속이 일치하여 깨끗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뵈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전대미문의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길을 온전히 보고, 그 길을 따를 수 있다.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선한 일을 기대하며 지난 5개월 동안 기도해왔다. 혹시 지금 기대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고 마음이 불안하다면, 내 마음의 창을 먼저 닦아보자. 안과 밖이 모두 깨끗해지면, 분명히 보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고자 하는 아름답고 놀라운 일들이 말이다.

이현승 목사

이 세상에 내 것은 하나도 없다

프란치스코 교황(Francis, Jorge Mario Bergoglio 1936~2025)의 마지막 편지를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나는 오늘, 이 삶을 지나가는 사람으로서 작은 고백 하나 남기고자 합니다.
매일 세수하고, 단장하고, 거울 앞에 서며 살아왔습니다. 그 모습이 ‘나’라고 믿었지만, 돌아보니 그것은 잠시 머무는 옷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이 몸을 위해 시간과 돈, 애정과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아름다워지기를, 늙지 않기를, 병들지 않기를, 그리고... 죽지 않기를 바라며 말이죠. 하지만 결국 몸은 내 바람과 상관없이 살이 찌고, 병들고, 늙고, 기억도 스르르 빠져나가며 조용히 나에게서 멀어집니다.
이 세상에, 진정으로 ‘내 것’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

람들도, 자식도, 친구도, 심지어 이 몸뚱이조차 잠시 머물렀다 가는 인연일 뿐입니다. 모든 것은 구름처럼 머물다 스치는 인연입니다. 미운 인연도, 고운 인연도 나에게 주어진 삶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니 피할 수 없다면 품어주십시오. 누가 해야 할 일이라면 ‘내가 먼저’ 하겠다는 마음으로 나서십시오. 억지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요.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오늘, 지금 하십시오. 당신 앞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의 온 마음을 쏟아주십시오.
울면 해결될까요? 짜증 내면 나아질까요? 싸우면, 이길까요? 이 세상의 일들은 저마다의 순리로 흐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흐름 안에서 조금의 여백을 내어주는

일입니다.
조금의 양보, 조금의 배려, 조금의 털 가진 이 누군가에겐 따뜻한 숨구멍이 됩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세상을 다시 품게 하는 온기가 됩니다.
이제 나는 떠날 준비를 하며, 이 말 한마디를 남기고 싶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내 삶에 스쳐간 모든 사람들, 모든 인연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세상에.
“나와 인연을 맺었던 모든 사람들이 정말 눈물겹도록 고맙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이 삶은 감사함으로 가득 찬 기적 같은 여정이었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삶에도 그런 조용한 기적이 머물기를 바라며 이 편지를 마칩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나
거짓 혀는 눈 깜짝할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잠언 12장 19절)

거짓과 진실도 반드시 짝이 나서
성장하면 드러난다
해아래 아니 드러나는 것이 없다
-봉우

한국 교회 마음을 울린 대부흥운동의 주역, 하디 선교사

한국교회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부흥운동이라 할 수 있다. 대부흥운동은 한국 사회를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구원하고 복음화하려는 하나님의 뜻과 한국 성도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과 부흥을 사모하는 선교사들의 기도가 맞물려 종합적으로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이고 역사였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은 1903년 원산 회개부흥운동이 그 기원이 되었고, 이 운동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남감리회 의료선교사인 로버트 하디 선교사(하리영 1865~1949)이다.
하디는 1865년 6월 11일 캐나다 온타리오주 세네카의 감리교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의 나이 10세에 부모님을 모두 잃었고, 1884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교사자격증을 취득해 2년간 교편을 잡고, 그 후 1886년 토론토 의대에 입학해 1890년 의학사를 취득했다.
1886년 고향 친구 마가렛 켈리와 결혼했는데, 이들은 ‘이 세상에 아주 유익한 존재가 되겠다’는 삶과 비전을 나눈 동지였다. 이 부부는 해외선교를 위한 학생자원운동에 동참하였고, 한국 선교를 결심했다.
그는 캐나다 토론토 지역 의대생들로 구성된 기독교청년들의 파송을 받아 1890년 9월 30일 부산에 도착했다. 이제 갓 복음이 들어온 한국에 할 일이 많음을 안 게 일은 하디를 불려들였고, 하디는 게일과 펜웨이 이은 한국에 온 세 번째 독립선

교사였다.
하디 선교사는 부산에서 게일 선교사와 함께 사역하다가 상경하여 제중원에서 에비슨 선교사와 함께 물려드는 환자를 진료했다. 이때 하디 선교사는 상당수의 죽을병에 걸린 사람을 치료하여 살렸고, 그로부터 서양 의사와 기독교에 대한 호감이 사회에 전파되었다.
1891년 당시 의료선교사가 없던 부산으로 내려가고, 다시 부산에 선교사가 늘어나자 원산으로 이동하여 시약소를 열고 환자를 돌보았다. 1893년 선교 센터를 건립하고 함경도와 강원도를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였다.
1898년 그를 파송한 기독교청년회와 8년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서 미국 남감리회로 소속을 바꾸었다. 남감리회를 통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영덕 및 원주에 이르기까지 여러 곳을 여행하며 만나는 사람마다 직접 복음을 전하고 환자들을 돌봤다. 그리고 개성으로 자리를 옮겨 남성병원을 설립하여 환자를 돌보았다.
하디에게 원산은 고향과도 같은 곳이 되었다. 1900년 12월 15일 원산으로 다시 파송을 받은 하디는 미 북감리회 선교사 맥길로부터 의료와 복음사역을 인수 받고, 원산에 주재하면서 의료선교사역과 함께 신앙공동체를 순회하며 교회를 설립했다. 그 결과 1901년 김화군 지경터에서 장년 15명에게 세례를 주고 강원도 최초의 교회인 지경터교회를 설립했다. 1901년 10월 5일에는 현재까지 존재하

는 강원도 최초의 교회인 양양교회를 설립했고, 이어 강릉 중앙교회, 고성 간성교회 등을 설립하였다.
하디는 교육 사업과 문서 선교에도 많은 활동을 하였다. 1909부터 14년간 협성 신학교 교장, 피어선 성경학교 교장을 역임하였다. 1916년 <신학세계>를 창간하여 진보적인 신학을 소개하였고, 1930년부터 은퇴할 때까지 <기독신보> 사장으로 활동하였다. 그는 40여 권의 저서와 170여 편의 논문을 남겼다. 특히 특정 교단에 치우치지 않고 초교파적으로 활동하였고 교파 간 연합 활동을 주도하였다. 교단 연합 기구인 조선예수교서회 및 기독신보 발행에 헌신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1935년 한국에서 은퇴할 때까지 44년간 한국 교회를 위해 봉사하였던 로버트 하디 선교사는 사역 중에 1893년 8월 9일에 딸을 얻었지만, 하루 만인 8월 10일에 딸은 주님 곁으로 갔다. 그 후 1903년 9월 1일에 둘째 딸을 얻었지만, 둘째 딸 역시 1909년 여섯 살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두 딸을 잃는 아픔을 겪었지만, 그의 선교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이 나라에 영적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한 위대한 선교사였다.
하디 선교사는 말한다.
“진짜 부흥은 내 안에 죄를 보는 눈을 뜨는 데서 시작된다.”
그의 말이 한국 교회를 울렸다.

김종춘 목사

매일 승리하는 기도를 하자

요즘 매일 새벽과 저녁에 꾸준히 기도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몸 여기저기가 아프고, 걱정 근심을 떨쳐내지 못하며, 내 생각과 마음도 잘 지켜내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기 시작했다. 하는 여러 일도 뜻대로 풀리지 않고 말이다. ‘무엇이 문제지? 기도도 충분히 하는 것 같은데?’ 하는 생각도 해봤지만, 그 이유를 잘 찾지 못했다.
그러다 얼마 전 수요일예배를 드리다가 말씀 중에 불현듯 깨닫게 된 게 하나 있다. 바로 내 기도 자세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새벽기도가 그랬다. 새벽기도를 집에서 하다 보니 크게 소리 내지도 못하고, 피곤하면 누워서 하기도 해서, 나도 모르게 기도의 자세가 느슨해진 거였다. 나를 기도한다고는 하지만, 때론 잠들기도 하고, 약한 영적 권세를 뚫고 하늘까지 기도를 올리지 못하는 내 모습이 떠올랐다. ‘아~ 예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승리하는 기도, 성공하는 기도를 하지 못했구나. 이게 문제였구나!’ 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새롭게 마음을 다잡게 되었다.

이제는 무조건 바로 일어나 무릎 꿇거나 앉거나 서서 전투하듯 기도한다. 이 영적 싸움을 반드시 이기겠다는 각오로 기도한다. 귀신을 쫓고, 천사가 기도를 돕도록 명령하고, 성령을 기름 붓듯 물 붓듯 부어달라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한다. 그렇게 기도의 자세를 바꾸자 막혔던 문제들이 점점 해결됨을 보고 있다.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것도 훨씬 수월하다.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해서,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고, 그날 하루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깨닫는다. 부족한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반드시 승리하는 기도를 하자. 뜻뜻미지근하고 느슨하게 하지 말자. 방해하는 악한 영적 세력을 뚫고 하늘에 내 기도를 반드시 상달하자. 기도에 승리하고,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며 주님이 주신 하루 하루를 기쁘게 살아가자. **장명훈 집사**

서울성전 건축헌금 계좌안내

국민은행 026401-04-297823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계좌 송금 시
성함과 소속교구(교회) 순서로
기입해주세요

노량진 교육관 기도회

장소: 노량진 드림스퀘어 D동 3층
저녁 8시(월, 화, 목, 토)
문의: 02.533. 9191